

지역 소식통

고창군,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대폭 확대

고창군은 관내 공공건물, 공공주차장 등 25개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46기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해 4월 한국전 자금투자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환경부의 '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군청사와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의무 설치대상과 충전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완속 7kw 17기, 급속 50kw 4기, 전기차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100kw는 25기 등 총 46기를 설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2025년 농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예산 신청

정읍시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예산을 오는 19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분야는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외 6개(1억원 미만) 소액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이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등은 4월 중 접수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분야별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오는 19일까지 시청 산림복지과를 비롯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목록과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숲가꾸기 사업 추진

미세먼지 저감, 산불예방 등 10억원 투입... 총 2만 그루 심어 변산해수욕장 주변 여름 꽃 특화숲 10h 조성 산림관광명소로

부안군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탄소흡수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10억 원의 투입해 221ha 면적에 총 2만 그

루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 변산해수욕장 주변 여름 꽃 특화



오는 3월부터 행안면 왕가산 일원에 산불 재해예방 및 등산로 주변 산림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50ha를 추진한다. (사진=부안군청 제공)

숲 10h를 조성해 새로운 변산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등을 위한 산림 관광 명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위도 일원에 산림경관 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섬지역 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밀원수림 3ha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림, 산림재해방지림,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으로 8ha 면적에 편백나무 등을 식재한다.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오는 3월부터 행안면 왕가산 일원에 산불 재해예방 및 등산로 주변 산림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50ha를 추진하며, 하서면 석불산 및 위도 일원에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기능 회복을 위한 공익림가꾸기사업 50ha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본 산림사업은 사고 위험이 많은 산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부안군 생활권 산림의 쾌적한 산림경관 조성 및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본격적인 나무심기에 앞서 우량 묘목수급 준비를 통해 오는 4월까지 불철 조림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활력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된 전일제 근무자 1100명 지역상품권 1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사회복지분야 처우개선비로 활력수당 1억1,00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활력수당(처우개선비) 지원은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민선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사회복지분야 대표 공약사업이다.

활력수당은 사회복지시설 95개소 1,100여명에게 고창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씩(연1회) 올해 첫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재가장기 요양기관, 사회복지분야 수행기관

종사자로 2024년 1월 현재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주40시간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된 전일제 근무자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97개소 1,8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3월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와 협약을 추진하여 상해보험료를 지원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농기센터, 월동작물 생육 재생기 웃거름 시용 당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에서는 기상 및 월동작물(보리, 밀, 마늘, 양파) 생육상황을 분석한 결과, 생육재생기를 2월 10일로 판단하고, 웃거름 시용을 당부했다.

생육재생기란 생육이 멈춰있던 작물이 월동 후 2월 상순경 연한 새 뿌리가 나오거나, 지상 1cm부위 잎을 잘라보면 3~4일 후 다시 생육을 시작하는 상태를 말한다. 웃거름 시용 적기는 생육 재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생육이 좋은 포장은 10a(300평)당 요소 9~12kg를 살포하면 되는데, 토질에 따

라 작황이 불량한 논은 2회로 나누어 1차는 생육재생기 직후에 요소 5~6kg을, 2차는 1차시비 후 20일경에 요소 5~6kg을, 황화현상 발생포장은 속효성인 유안으로 11~14kg을 뿌려주면 되고, 조사료용은 일반 보리보다 30% 더 살포하여 주변 줄기 수를 늘리고 생육을 왕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마늘 양파는 정식 후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C정도 높아 월동 전 연약하게 웃자란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있고, 월동기 강우량이 많아 지나치게 습한 땅은 불베짐이 잘 되도록

물길을 정비해주고 생육재생기에 맞춰 식물체 뿌리가 양분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저온도 4°C가 되는 시기에 1차 웃거름 주어야 한다. 겨울나기 직후 관리요령은 양파에 발생하는 노균병과 양파, 마늘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은 겨울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수시로 작물을 살펴보고 병 증상이 발견되면 초기에 방제해 주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리 등 맥류는 습해에 약하므로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 불베짐을 좋게 해야 하고, 농업인들이 재배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주학생 고창군 친환경쌀 먹는다

고창군 한결영농조합법인 학교급식 공급 생산자단체 선정 3월부터 제주도 학교급식 친환경쌀 연간 800여톤 공급

고창군 한결영농조합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생산자단체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공개 모집을 통해 5개 단체 중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3개 단체를 제주도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생산자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고창군 친환경쌀은 오는 3월부터 2년간 제주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833개교 10만9,000여명(2023년 기준)에 공급된다. 한결영농조합법인(대표 박종대)은 전국 최고의 수준을 갖춘 고품질 쌀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이마

트 에브리데이, 올본, 서울학교급식 등 전국 700여 개소에 친환경 쌀을 납품하고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고창 친환경 쌀이 제주도 지역 학교에 공급되어 고창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연간 800여톤의 고창 친환경 쌀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건강하고 안전한 고창 친환경 쌀을 제주도 전역에 공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민과 상생하며 고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판로개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철태 고창부군수,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 점검

올해 8종 20대 신규농기계구입... 사용료 연말까지 50% 할인

김철태 고창부군수가 지난 8일 고창군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임대사업 시설을 둘러봤다.

김철태 부군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진행되는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당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한 농업인파도 면담했다.

현재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개소로 총 98종 1014대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8종 20대의 신규농기계를 구입해 농업인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또 농기계임대비에 상응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연말까지 50% 할인과 마을회관까지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철태 고창부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영농철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신규농기계 구입과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접수

정읍시, 내달 10일까지

정읍시가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과 미래세대 건강 증진을 위해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 까지 구매금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

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에게 유기농산물, 무항생제육산물, 인공품 등을 올해 12월까지 공급한다.

신청 방법은 에코이클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출생증명서, 출산·임신헌인서, 산모수첩 등)를 지참해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검증이 완료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에코이클 시스템을 통해 올해 3월 중 선정한다. 단,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임산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